

정부, 산업위기지역에 900억원 집행...설 대책 '최초'

[설 민생안정대책]

기획재정부,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위기지역 900억 지원·노인 일자리 조기 공급
 배추 등 15개 설 성수품 공급, 최대 3배 확대
 "명절 물가·생계부담 덜기 위해 대책 마련"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900억원가량의 예비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맞이 대책 중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만명 수준의 희망 근로 관광자 조성, 도서관 건립 등을 위해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총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가용 정책수단을 최

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예비비·특별교부세 지원과 더불어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5750억원 판매한다.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규모다. 온누리상품권 450억원·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이다.

8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내달 28일까지 개최한다. 지역 축제와 농어촌 및 섬 관광·근로자휴가지원·문화시설 설치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도 활성화한다.

내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 역귀성자에게는 30~40% 할인 혜택을 준다. 설 연휴 기간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작년 설 대비 5조 5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보증액은 33조

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금액을 1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안정 자금과 중소기업·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는 조기 지급한다. 4400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2월까지 조기 집행한다.

노인 일자리도 1월 중 조기 공급한다. 2019년 노인 일자리 61만개 중 30%에 이르는 18만개가 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공급량 늘리기도 주력한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농·축·수산물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2.8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판장·직거래장터 등도 전년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까지 확대 개설한다. 특판장 2238개소·직거래장터 171개소·로컬푸드마켓 224개소·축산이동판매점 15개소 등이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교통·화재·가스 및 전기·산재 등 4대 위험요인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방자치단체별 대책반·기관별 비상 안전 대응상황실도 운영한다.

기재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민생 근심은 덜고 지역경제활력은 살리자"는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며 연휴 기간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설 민생안정 주요 대책

장보기 부담 덜고 소비자 혜택 확대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 평시대비 일일공급량 배추 무, 사과, 배 1.7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1.3배, 밤, 대추 2.8배,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고등어 1.2배

-물가점검, 부정유통 및 식품안전 단속 등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직거래 및 특판행사, 할인 확대

- 특판장 2238곳 농축협 제수용품, 과일, 한우 등 10~50%!
- 직거래장터 171곳 농축산물 10~30%!, 수협 바다마트 15~30%!
- 로컬푸드마켓 224곳, 축산 이동판매, 우체국온라인 선물세트 40%!, 공영홈쇼핑 등
-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 5~10% 한도 30~50만원

고용산업위기 지역 900억원 수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희망근로사업, 지역경제사업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 설 축제 등 연계

- 1월17~2월28일 코리아 그랜드 세일 교통·숙박·식음·관광 830개 업체 참여
- 14개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시설 무료개방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월4일~6일)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취약계층과 나누고 상생하는 따뜻한 명절 조성

중소·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확대

-대출, 신기보 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 5.4조원 확대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확대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및 관세 부가세 환급금, 일자리안정자금,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 조기지급

임금체불 단속 강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1월 신청분 명절 전 조기지급

불편은 줄이고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

교통의료 등 대응 체계 구축

- 당직의료기관, 휴일 지킴이약국 운영·점검
- 우편 집중국 관리 등 우편특별수송대책 추진

주요 지원정책 규모	2018년	2019년
신규대출, 보증 지원	27.6조	33조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1.9조	2.8조
전통시장상품권	3000억	4500억
지역사랑상품권	620억	1250억원
복권기금 조기집행	3457억	4400억원
고용부 일자리사업	12억	1366억원
	29.2조	35.2조

자료: 정부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 50만원까지 구입 가능

1~2월 판매 총액, 1500억 늘어난 4500억까지 확대

왕궁까지 열렸어! 설맞이 혜택!!

온누리 상품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할인율 5~10% (기간: '19.1.21~1.31) (제한 없이)

할인율 30~50만원 (기간: '19.1.21~2.20) (제한 없이)

왕궁이 열리면 한도가 아까워야 할까? 아니야!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의 개인구매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한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한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2일 발표한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할인을 상향 특별판매는 31일까지, 한도 상향은 내달 20일까지다. 1~2월 온누리상품권 판매 총액도 전년 동기보다 1500억원 늘어난 4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

재부는 정부부처·공공기관 의무구매 활용 및 판매촉려, 기업 구매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지역사랑상품권도 전년보다 630억원 증가한 1250억원 판매한다. 기재부는 연휴 전 목적예비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 할인비 비용 5%·부대비용 3%로 구성된 발행 비용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 지원한다.

이밖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특별교부세 등 총 900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밝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이외에도 군산·창원 등 1만명 규모의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지원, 관광인프라 및 안전·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경제 사업

등에 사용한다.

노인 일자리도 1월 중 조기 공급한다. 2019년 노인 일자리 61만개 중 30%에 이르는 18만개가 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정부 지원 재정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도 연다. 행사에는 교통·숙박·식음료·관광업계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의 할인을 제공한다. 기재부는 지역 리조트 할인과 템플스테이 등을 제시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국 춘절(내달 4~10일)과 연계해 중화권 등지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지역별 축제도 개최한다. 얼음 나라 산천어축제(강원 화천)·칠갑산 얼음분수축제(충남 청양)·이월드 별빛 축제(대구 달서구) 등이다. 겨울철 별미·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 마을 10선을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이벤트 등을 통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전국 궁궐 등 문화기관을 무료개방해 설 명절 체험행사도 제공한다.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편의·연가장려대책도 내놨다. 내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KTX 역귀성자에게는 30~40% 할인 혜택을 준다. 설 연휴 기간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에게 연휴 전후로 연가 사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총 4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은 기재부와 중소기업벤처부·행안부·고용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